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1:27-30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7:13-2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7) 싸인은 엄지척!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363/새337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돌아온 갑(甲) Return to Beginn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가 초등학교 시절 외할아버지 회갑연에 갔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새하얀 머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옛날 임금의 평균수명이 47세였고, 만수무강을 누렸던 분들도 55세를 살았다고 하니 만 60세 회갑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수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60세 생일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조합이 60년 만에 신축년으로 돌아온 것이니 말 그대로 회갑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돈 것이고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대, 50대가 되던 때가 뚜렷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60은 그 옛날 흑백사진에 남아 있는 할아버지의 회갑연이 생각나서 그런지 처음에는 실감도 안 나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할아버지 되기를 부인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 멀고도 아련했던 회갑이 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 교회는 I-ttitude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외치며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저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80이 넘으신 건강한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희 베델 목회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걸으시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서서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께 건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일만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60부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도 지금부터 트레이너 붙여서 하면 80, 90 끄떡없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좀 더 건강을 잘 챙기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까지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백 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교수는 ‘살아보니 열매 맺는 60세 이후가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갑은 한 바퀴 살아봤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달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베델에 와서 처음 작사한 주제곡이 생각납니다.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튼튼이 끝난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한 바퀴 산 사람답게 길을 헤매는 일 없이 열매 맺는 길을 운전하며 달리고 싶습니다.

처음의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 회갑이었는데, 회갑은 한 인생을 회개하고 지난날의 껍질(갑)을 벗고 가장 왕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으로 출발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육 학년 되었으니 저도 베델 MIT 학생이 되어 “60이 시작이고, 70이 한창이고, 80이 꽃봉오리다!” 외치고 싶습니다.

I vaguely remember going to my grandfather's 60th birthday celebration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He was a grandfather with white hair. In the old days, average life expectancy of a king was 47 years old, and nobles with longevity lived to 55 years old. I'm sure, to live to celebrate 60th birthday was truly a symbol of longevity. In association with zodiac signs, 60th birthday in Korean literally means return to beginning. After a full cycle of zodiac signs, 60 years, it returns to the beginning. It could also mean a full circle has been made and anything after that is extra. I remember turning 40 and 50 clearly. However, turning 60 reminds me of black and white photos of my grandfather's 60th birthday. It doesn't seem real. More specifically, I am in denial that I could be a grandfather. However, 60th birthday, which seemed far away, came to me.

Our church began the New Year with I-ttitude. We shouted in determination to raise the altitude of faith at this year's Early Morning Prayer. This message was a perfect application for me. I remember what a healthy 80-year-old deacon once said. He joined our Bethel pastoral staff's early morning hike. He did not fall behind but was ahead leading everyone. So, I asked him for his secret to staying healthy. He said he worked all his life until he began to have health issues. He began taking care of his health at age 60. “Pastor, if you start to work out with a trainer now, you will not have problems when you're 80 and 90.” That was a tremendous encouragement for me. If I start now to exercise and to take care of my health, I feel I could work until 80. Professor Hyung-suk Kim, author of “Now that I have lived 100 years” said, ‘Now that I have lived, the fruit bearing years after my 60th birthday is the most precious’. If so, then this is just the beginning. Now that I have lived a full circle of life of 60 years, I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run the race without trial and error and to live a life of bearing fruits.

I am reminded of the first lyric I wrote for a theme song after coming to Bethel. “I will walk again, I will run again~” With this heart, I will start again. Like turning on the ignition of a car that has been fine-tuned, I want to drive and run on the road of bearing fruits without getting lost, like someone who has been through this way before, like someone who has lived a cycle of life.

60th birthday means you have returned to the beginning. I will interpret this as start of a new life of bearing fruits, repenting, and peeling off the past. I am now in 6th grade, a student of Bethel MIT. I want to shout “60 is the beginning, 70 is in the full wing, and 80 is the budding flower!”.


빌립보서 강해 -제7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싸인은 엄지척!

(빌 1:27-30)

1.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을 구체적인 말로 바꾸어 설명해 보십시오.(27절, 참고/딤후 2:10, 딤후 3:1-2)

적용하기



2.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괄호를 채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참고/롬 1:16, 요 15:18-19)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으로 서서 ()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빌 1:27)

3.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어떤 싸인을 보여주시길 것 같습니까? C. 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하며 답해 보십시오.(28절, 참고/시 73:2 이하)

4. 지금 우리 생활에 '싸움/고난'이 있을 때, 그것도 은혜라 할 수 있을까요? 29-30절을 읽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 나눠 보십시오.

■ 적용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363/새337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카타콤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이 감사의 댓글을 보내 주심으로 뜨거웠던 기도회 현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팬데믹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은사를 사용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셔서 우리의 보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 동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카타콤 기도회는 기도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

다. 늘 내 중심이었던 기도는 회를 거듭하며 뜨거워지는 은혜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더 나아가 내가 서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이 감동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산 경험'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만 생기고 튼튼해질 수 있기에 더욱더 연단하여 삶을 지탱하는 호흡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공예배와 사회적 활동이 제한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재촉했던 것이 바로 '카타콤 기도회'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코로나 급물살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베델교회가 던져 준 구명조끼 같았습니다. 같은 조끼를 입고 매주 목요일 화면으로 만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군사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전우애로 함께 했던 일 년여의 시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만 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찬양의 이유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린 은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팀들이 모여서 준비하며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카타콤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I am put here! 온라인을 통해서 카타콤 기도회의 동역자들을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매주 큰 은혜요 감동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타콤 기도회 forever~

카톡 채널 사역 소개

카톡 사역, 어떻게 하시나요?

카톡 채널 사역이 시작된 동기를 알려주세요?

팬데믹 이후에 카톡 채널을 통해 교회의 모든 소식을 성도들에게 신속하게 전하고 성도들은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는 교회와 성도님의 '소통의 도구'가 필요하여 시작된 사역입니다.

카톡 채널을 통해 어떤 것이 소통되고 있나요?

주일예배, 주보, 말씀 노트, 매일 새벽예배를 대신하여 준비된 아침 영상 메시지, 수요일예배를 대신했던 수요일 프로젝트(아이엠, 베델이 간다, 베델 큐, 카타콤 기도회 Again, 예수아 등)와 기도의 영성을 위한 "목요일 카타콤 기도회" 교회학교 각종 소식, 봉사자 모집 광고, 베델뉴스에 실렸던 감동적인 글 등, 카톡 채널을 통해 교회의 소식과 변화되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소통 방법은 카톡 채널에서 메시지가 가

면 카톡에서 대화하듯이 바로 댓글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글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소통의 창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섬기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나요?

행정목사가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시고 제가 카톡 사역 담당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베델뉴스지를 받아 본 후, 다음 주간의 카톡 채널에 나갈 내용을 기획하고 기획된 내용을 디자인 요청합니다. 가장 수고하시는 분은 팬데믹 시기에 제일 바빠지신 디자인 간사입니다. 미디어의 그래픽 앞표지들, 카톡에 들어가는 글씨, 이미지, 내용 등 모두를 아우르는 작업들을 섬 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카톡 채널은 데일리로 진행되고,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도 허다한데 그때마다 흔쾌히 디자인을 해주셔서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성도님이 카톡 채널을 통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김홍식 목사

카톡 채널 댓글에 감동적으로 나눠주신 성도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매일매일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 성령 재충만 하도록 전해주시는 목사님 님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에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거운 날을 보내겠습니다. 아멘"

예살 필라델피아 선교

넘치는 사랑이 티끌을 씻어 버리듯이

"Bang!"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인 '노스센트럴'의 2021년 새해는, 한 청년이 마약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는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필라델피아. 그러나 노스센트럴은 시 정부에서도 방치하는 지역입니다. 시설이 낙후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집은 주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냉장고나 샤워 시설이 없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밀린 주차 티켓, 대마초 소지 등의 이유로 중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취직할 수도 없고, 각종 정부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곳의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 사이에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예살 청년들이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다.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만나러 온 걸까 궁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땅에,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기도가 쌓여,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선교로 필라델피아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곳을 위해 선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선교사님과 줌 미팅을 통해 그곳의 근황과 어려움 및 감사의 제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섯살부터 썸머 캠프에 참석한 브라이언과 아야샤가 울가울에 대학에 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우리에게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는 대학입학이지만, 브라이언은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캠프를 통해 만나게 된 선교사님과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차 눈물이 나던지요! 예살에서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를 품게 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매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저희는 그곳을 기억하며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모아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혜원 자매(예살 청3)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저희는 은혜 목장 세월4셀에서 비슷한 연령대로 모여 올해 초 분가한 세월4셀입니다. 처음에는 셀모임을 진행하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나 친한 셀식구들 덕분에 제가 셀목자인 것을 잊을 정도로 편안하게 셀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월2셀 때부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서로 더 가까워졌고, 마음속 깊은 기도 제목까지 나누면서 든든하고 끈끈한 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셀모임과는 별개로 셀식구를 일주일에 한 가정씩 집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기도 했습니다.

세월4셀을 시작하면서 새로 배정된 가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셀식구들이 위낙에 친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새로운 가정을 통해 저와 아내가 셀목자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셀목자 가정 덕분에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들곤 하는데, 저희는 도리어 셀식구들 덕분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게을러서 화요일 아침에 대면 예배 신청을 잘 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가족을 제외한 모든 셀식구들이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같이 참석하자며 도전해 주셔서, 그때부터 저희는 정신 차리고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희 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셀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저희 셀의 작은 목표가 있다면, 세포가 분열하듯 저희 셀도 성장해서 또 다른 셀로 계속해서 분가해 나가는 그런 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셀식구 모두가 성장하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진규 집사



BGC & BYM 연합 기도회

아론과 훌(Aaron and Hur)

영어 교회(BGC)와 영어 고등부(BYM)에서는 지난 금요일 (6월 25일) 저녁 7시 30분에 '연합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마다 있는 기도 모임은 참석 인원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 단장한 비전 채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한 영어 교회 성도님들과 영어 고등부 학생들의 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현장에서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Peter 전도사님과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현장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담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멜로디에 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Dan 목사님, 고등부

John 목사님 그리고 Justin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금요일 저녁,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에서 주님이 과연 일하시고 계신가를 깊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일 일을 알 수 없

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악한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각자 기도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와 찬양은 확실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여러 명의 목사님이 나누어주시는 삶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인도해주시는 그 시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이처럼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BGC와 BYM 고등부의 찬양 예배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베델 뉴스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참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러했습니다. '복음의 빛 공과'라는 교재로 말씀을 배우던 교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새벽기도가 있던 유초등부 시절을 돌아보면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를 거치며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

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미국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반항하고 있던 동안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유난히 외로움에 잘 빠저드는 저를 강하게 불러 주셨고, 남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모태 신앙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로 미뤄왔던 입교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던 날, 결혼예식보다도 더한 감동이 있던 그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열심으로 함께 하던 성경 공부와 여러 사역을 통해, 말씀의 기초와 사랑의 섬김이 부족했던 지난 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없었다면, 25년의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

갈 구체적인 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웠었으니까요. 그러나 매번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고, 저는 미국에 사는 일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콜로라도를 거쳐 앨바인으로 이사 오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새로운 동네로 이사와 힘들고 허전할 때마다 품어 주시던 목사님, 셀 식구들이 제 옆에는 계셨습니다. 세상 상황이 어떠한든, 제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곳'을 채우시는 주님, 맑은 가락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계셔 오늘도 새 힘 얻어 살아갑니다. 그 평화와 사랑의 물결이 제게서 다른 이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선경B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서찬석 목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말씀을 배우시다” 예삼 샘터 특강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샘인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렘 2:13). 그리고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다고 해도, 순간의 갈증만 해결할 뿐 더욱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요 4:13).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삼에서는 셀이 방학하는 7, 8월 동안 샘터 특강을 진행합니다. 아래 3가지 강의 중 하나를 신청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말씀으로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길 소망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1. 구약과 내강문구 목사: 구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신 분임을 배워가는 시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이 재미있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의 2.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서찬석 목사):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3. 회복-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김유미 전도사):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깨지고 연약한 부분들을 그분께 내어 드릴 때 치유되고 변화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만 신청 가능)

▶기간: 7월 4일(주일)~8월 8일(주일), 6주간

▶시간/장소: 예삼 예배 후 교회에서 오프라인 진행(강사를 통해 개별연락)

▶신청: 셀목자 또는 <https://forms.gle/q1fPAJDAR8UEA7Dh6>

예배 봉사자

강단꽃(7월) | 7/4: 김성희, 옥병광, 정승락 7/11: 기정호, 최동주, 황자경 7/18: 박관규, 박재영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웹시바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완전된 기준으로 예배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오픈을 하며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베델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 지난 수요일 6월 30일부터 새로운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새롭게 편성되어 방영을 시작 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말씀을 담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는 "예수아"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 **아침영상 메시지 "여름" 이벤트**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하신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작품은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모집기간: 7월 4일-7월 18일

방법: 사진 4K화질의 원본 파일(가로로 촬영)

원본 파일 보낼 곳: bethel@bkc.org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주차 안내** 이번 주 7월 4일(주일)부터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2,3부 예배에는 이중 주차를 하고 있으니 이중 주차 하시고 자동차 열쇠를 주차 사무실에 맡기시고 티켓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를 위해 신속한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간에는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로 모든 분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 **동시통역 안내** 2,3부 주일예배 통역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과 현장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성도님께서서는 본당에 입장하실 때 로비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일본 선교 (리모트) 팀원 모집** 올해 일본 단기선교는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리모트로 진행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선교지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리모트 선교로 영어 성경 캠프, VBS 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리모트 선교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5일-7월 29일 오후 5-8시 (일본 현지 오전 시간에 맞추어 사역을 합니다)
신청/문의: 홈페이지, 허용진 장로 (714)423-6996

◆ **예살 센터 특강 안내** 예살에서 셀모임 방학 기간(7-8월) 동안 다음과 같이 센터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필라델피아 온라인 선교 재능기부** 예살 필라델피아 단기선교팀에서 필라델피아 선교를 위해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판매합니다. 본당 앞 코트야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근제 집사 (716)907-1181

◆ **교회학교 VBS 카니발 안내** VBS에 등록하신 분들은 7월 17일(토) VBS 카니발이 있습니다. 신비한 Reptile Animal Show와 게임, 그리고 카니발 음식이 준비되어 많은 기대 바랍니다. VBS 카니발은 VBS에 등록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시 선택하신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17일(토) 유아, 유치, 소망부 오전 10-11시, 11-12시

유년, 초등부 오후 1-2시, 2-3시, 3-4시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임시총회 공고** Bethel Classical Academy(BCA) 관련 사항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임시총회가 7월 11일(주일)에 개최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Zoom으로 개최 하며 회원 확인을 위해 미리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7월 6일(화)부터 카톡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신청: 7월 6일(화) 카톡채널 / 교회 홈페이지

일시: 7월 11일(주) 오후 7시

◆ **위로해주세요**

故 안경일 집사님(안기준 집사의 아내)께서 6월 28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